

### 강진군 도암면, ‘사랑나눔’ 본격 추진

#### 영양취약가구 30명에 ‘사랑담은 반찬통 사업’

#### 주거 열악·틀니용품 지원 등 6개 사업 진행

강진군 도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도암지사협은 당초 행복천사 기부릴레이를 통해 공동모금회에 모금된 기부금을 배분 받아 상반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각종 집합 회의를 비롯해 대상자 결정 및 사업추진이 연기됐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일상 복귀가 이뤄지면서 협업체 사업도 점차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도암지사협은 지난 5월 14일 전체회의를 갖고 상반기에 진행할 4개 사업 대상자

를 결정했다. 이후 5월 27일 남자 독거노인 어르신 등 영양취약가구 30명에게 반찬통과 부식을 전달하는 ‘사랑담은 반찬통 사업’을 추진했다.

‘사랑담은 반찬통 사업’ 외에도 ‘천사의 선물,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등 3가구에 4백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틀니사용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어른이가 튼튼 어른건강 튼튼’ 사업으로 20명의 어르신에게 틀니 관리용품도 지원한다.

경로당 운영 재개에 맞춰 ‘마을로 찾아가는 우리동네 영화관’도 재개해 매월 8개 마



에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나 질병으로 위기를 맞은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사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윤해성 도암지사협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가 다소 가라앉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농번기를 맞아 자원봉사에도 어려움이 있는 시기이다. 하지만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업추진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암지사협은 군에서 지원하는 특화사업비로 현재 거동불편 장애인 등에게 택시쿠폰을 지급해 이동편의를 지원하는 즐거운 외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취약아동에게 친구들과를 초청해 생일잔치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의 생일파티 비용을 지급하는 특화사업도 진행해 오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서로 좋은 장터 많이 찾아주세요”

#### 광주 서구, 5일 청사 1층서 ‘서로 좋은 자활마켓데이’

광주 서구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사회적기업과 지역자활사업단을 돕기 위해 ‘서로 좋은 자활마켓데이’ 장터를 연다.

서구는 5일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구, 지역자활센터 2개소와 사회적경제 14개 기업주관 ‘서로 좋은 자활마켓데이’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장터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지역자활사업단의 홍보와 제품판매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는 자활생산물과 사회적경제 기업생산물 나눔장터로 진행된다. 자활사업단에서

맞춤형으로 주문 제작하는 수제마스크 제작 판매와 생활용품, 수공예품,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유산균 빵과 음료 등 취·창업 기술교육 및 마을공원을 관리하는 바이오페이 협동조합, 중증장애인 직업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엠마우스 일터 등 14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열린 홍보와 판매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역사회에 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교류 및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카드 및 상생카드도 사용 가능하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 SNS 채널을 활용

#### 사이버 상담 ‘호응’

####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공백기를 사이버 상담으로 채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를 통해 사이버 상담실을 구축해 사이버 상담을 실시, 청소년들의 불안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비대면 상담을 활성화하고 있다.

사이버 상담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해 심리건강 체크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줌으로써 간편하고 접근에 부담이 없도록 진행한다.

담양=박종영 기자

### 보성군 별교읍, 어려운 이웃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



보성군 별교청년어울림(회장 김현진)과 별교건설한마당(회장 양철수)은 지난 5월 31일 관내 어려운 이웃 6세대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장애인 가구에 청소 및 화재현장 복

구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가구에 대문 페인트칠과 LED전등 교체를 실시했다.

봉사에 참여한 ‘별교청년어울림’은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청년 32명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결정한 모임이다. ‘별교건설한마당’은 수년간 복지사각지대

에 놓인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청년어울림 김현진 회장은 “우리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LED전등 교체, 페인트칠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별교건설한마당 양철수 회장은 “화재로 힘드신 피해가 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광양소방, 노인 돌봄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 독거노인 10명 안부확인·안전교육·응급처치 방법 등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5월 30일에 의용소방대원이 안전에 취약한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보살피는 “찾아가는 노인 돌봄서비스 전문의용소방대 운영했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전문의용소방대원 중 생활안전강사·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평소 노인과 더불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의용소방대원들이다.

서비스 대상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10명으로 선정했다.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은 본인 거주지 근처에 사는 노인들을 매달 한 차례 방문해 안전수칙 방법과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알



려주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을 겪는 노인들에게는 말벗도 해준다.

소방서 관계자는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대상 가구를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방문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극복해봅시다! **COVID-19**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작은소리에드워 키움에는 **의회 고흥군의회** GOHEUNG-GUN COUNCIL

<http://igoheung.com/>